

# “작가 입장에서 이순신 만나보고 싶었다”

###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동하 첫 역사소설 ‘한산’ 펴내 전쟁이 들추어낸 인간군상 그려

“작가의 입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김동하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역사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더욱이 일반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이순신을 모티브로 한다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러웠을 터였다.

그러나 작가의 대답은 의외였다. 소설가로서, 창작을 통해 인간 이순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본질적인 바람에 가까웠을 것 같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동하 소설가가 첫 역사소설 ‘한산’ (고즈넉이엔티)을 펴냈다.

전업작가로 창작에만 전념하는 작가는 성실하면서도 근성이 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이런 저런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본업인 소설 창작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쪽에 발을 들여놓거나 하지 않는다.

그동안 ‘운석사냥꾼’, ‘피아노가 울리면’ 등 스릴러물과 드라마 성격의 작품을 펴냈던 작가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사물이라는 전혀 다른 장르의 소설을 들고 독자 앞으로 다가왔다.

“‘한산’은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 작업한 소설입니다. 사실 이순신의 삶을 다룬 좋은 작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저 또한 적잖이 접한 터라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뒤따라올 이런 저런 핼이 부담스러웠죠.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이번 소설을 쓰기로 한 건 독자가 아닌, 소설가의 입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죠.”

역사소설은 실존 인물을 조형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 장르와 차이가 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물 재창조가 성패를 좌우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이 작가가 그린 이순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김동하 소설가 <김동하 제공>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은 내가 써낸 이순신과 그 밖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일까를 질문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다룬 소재는 수없이 되풀이 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한산’의 기본 골격은 되도록 사실적으로 유지하려 애썼죠. 다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써볼까를 두고 골몰했는데, 기존에 스릴러를 쓴 경험이 있어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설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사실, 팩트를 근거로 하더라도 상상적인 요소가 작품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마련이다. 그는 상상력의 가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은 비단 적군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작중 가상 인물인 ‘진송’과 ‘박예진’이 그런 사연들로 탄생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작가에 따르면 일본군의 자객단인 신우대 또한 상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지만 그 휘하를 완벽하게 통제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조선 침략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착안해 상상력을 발휘한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현장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봤다. 사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덟 번의 전투는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작가는 “비슷한 전력이 앞서 뚫혔으니 이번에도 통할 것이란 막연한 바람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전략회의 과정을 통해 수립됐다는 것을 소설에서 드러내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결국 ‘한산’을 관통하는 가장 큰 사건은 전쟁이다. 전쟁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온갖 폭력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그 거대한 폭력의 대척점에서 인간성 회복의 열망이 발현되기도 한다”며 “이번 소설에서는 전쟁이 들추어내는 인간의 면면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작가는 다음 소설은 전쟁이 아닌 사랑스럽고 따뜻한 작품을 쓰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재는 정해졌다고 한다. 다만 “장르를 정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산’을 쓰기 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으니 조만간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러면서 작가는 자신을 ‘야옹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조카 얘기를 꺼냈다.

“그 조카가 여섯 살 때쯤 제가 쓴 소설을 뒤적거리던 기억이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화는 아니더라도 조카가 2-3년 뒤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도 싶어요.”

언제나 성실하고 진지한 김 작가는 머릿속에 늘 소설을 생각한다. 원고 작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털썩 겁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독자로서 소설을 좋아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사실 소설에 큰 빛을 쬐던 경험이 있어요. 그 빛 때문에 소설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 병명을 알 수 없는 심장의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소설을 쓰면서부터 그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직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앞으로도 써나가는 과정에서 차츰 방향성이 생기기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여름밤 무더위 씻어줄 연극 만나다

### 공포 심리 스릴러 연극 ‘홍터’ 31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한여름 무더위를 씻어주는 공포 영화를 만난다. 공포 심리 스릴러 연극 ‘홍터’가 오는 31일(수금 오후 7시 30분, 토 3-6시, 일 4시)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공연을 올린다.

2012년 초연을 올리며 대학로의 대표 공포연극으로 사랑받은 홍터는 치밀한 구성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상상 이상의 잔인한 반전을 통해 1초도 쉬지 않고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지은, 재용, 동훈 세 친구의 등산과 지은의 돌연 의문사를 둘러싼 대체모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시 찾은 등산 속 마주하게 되는 기억과 진실이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며, 같은 사건으로 갖게 된 다른 상처 속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대학교 때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사회 초년생이 된 동훈, 재용, 지은. 복잡미묘한 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등산을 시작한다.

등산 중 지은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8년 뒤 재용과 동훈은 지은이가 사고사로 죽었던 그 산을 다시 찾았고, 등산 중 재용은 부상을 입으며, 업진데 묘친격으로 갑작스럽게 길까지 잃게 된다. 가까스로 발견한 검은 산장에서 그들은 구조를 기다린다. 아무도 찾지않은 비밀스런 산장에서 재용과 동훈은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과거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결국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홍터’는 크고 작은 죄책감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마음의 ‘홍터’ 그리고 아몰지 못한 ‘홍터’를 상기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티켓 가격 3만5000원. 문의 1600-668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연극 ‘홍터’ 공연 모습.

# ‘제1회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에 영광 출신 장진기 시인

### 수상작 ‘어린 시절 별밤을...’

문예지 ‘문학들’이 제정한 ‘제1회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에 영광 출신 장진기 시인(사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문학들’ 2021년 가을호(통권 65호)에 발표된 장 시인의 작품 ‘어린 시절 별밤을 창틀에 걸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은 “철저한 고립과 고독이 주조한 저 깊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라고 평했다.

장 시인은 소감에서 “전쟁의 종군 기자로 나가서 시를 쓰라는 격려, 빛이 되라는 명령”으로 상을 받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장 시인은 ‘칠산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사금과리 빛 눈 입자’, ‘슬픈 지구’, ‘화인’ 등을 펴냈다.

이번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 제정은 ‘문학들’이 지역문학을 활성화하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견인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직전 1년 동안 기간 ‘문학들’에 발표된 광주·전남 지역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수상작은 편집위원이 장르별 심사를 거쳐 추천하고 최종 합평을 통해 전원 합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문학들’ 발행인 송광룡 시인은 “비록 상금이 약소하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올곧게 원칙을 지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문학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작과 심사평, 수상소감 등은 기간 ‘문학들’ (통권 68호)에 게재됐다. 시상식은 오는 8월 오후 5시 30분 BHC치킨 광주금남로27번 가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문학들’ 신인상 시상식(소설 부문)의 김지원, 시 부문의 전경숙, 송하연)도 함께 치러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람 불어 꽃술이 흔들릴 때’ 등 담아

###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103호’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광주문협)의 기관지 ‘광주문학 103호’ (여름호)가 최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서구특집으로 ‘바람 불어 꽃술이 흔들릴 때’와 광주문협 ‘상반기 신인회원 특집’을 통해 광주문학인들의 지역 사상과 창의성을 담았으며 아울러 신인회원들의 신작을 실었다. 또한

2022년 봄호에 게재된 작품에 대한 계간 평이 전속(시), 윤삼현(아동), 박영덕(수필), 최문경(소설) 작가의 글로 게재됐다.

이밖에 이번 호에는 회원 주소록을 비롯해 명예 회원, 2022 상반기 신인회원 명단이 실렸다.

탁인석 회장은 권두에세이에서 “광주시가 문화 발전에 이력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 급속한 문화예술상에 격에 맞는 상금을 걸고 그 위상



정이다.

과 권위를 만들도록 서두를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협은 지난 1987년 초창기부터 2021년까지 광주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근황과 대표작을 모은 ‘광주문학상 수상자 작품집’을 오는 10월께 발간 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